

귀국보고서

파견대학	뉴저지시티대학교
파견기간	2019. 1 . 17 . ~ 2019. 12 . 17 .
프로그램	정규 교환학생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유학생 보험은 한화생명을 이용하였고, 비용은 50~6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비자발급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고, NJCU 측에서 보내주는 DS-2019를 받아야 비자신청이 가능해서 비자발급까지 대략 2~3개월정도 걸렸어요.

항공권은 1학기때에는 왕복티켓으로 예매하였고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을 이용하였습니다. 뉴왁 (EWR)공항을 이용하였습니다. 뉴왁 공항까지는 직항이 없어서, ATL에서 경유해서 EWR로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NJCU 담당자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고, 학교에서 픽업하러 와준 학생들과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을 만나 다 함께 우버를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항공권은 왕복으로 대략 17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5월말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방학을 보내고 2학기 시작 전 8월 말에 출국 하였습니다. 2학기때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경유하여 EWR 로 갔습니다. 항공권은 개인적으로 편도로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학기 끝나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학교측 또는 교수님 사정으로 인해 시험을 생각보다 늦게 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왕복으로 예매하면 변경수수료가 들기 때문입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저는 27인치 29인치 캐리어 한 개씩 총 두개와 백팩, 보스톤 백을 들고 갔어요. 출국 전 아마존으로 침구류와 전기장판을 미리 NJCU 학교로 배송 시켜 놔어요. 배송 장소는 교환학생 담당자 선생님 사무실로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드라이기, 옷걸이 등 필요한 물품들은 학교 근처 마트에서 샀습니다. 주로 옷, 상비약, 노트북, 돼지코, 화장품 등을 챙겨갔습니다. 겨울 옷들이 많아 부피가 너무 커서 다이소 압축백으로 압축해서 가져갔습니다. 저는 옷을 많이 안 챙겨 가서 미국에서 많이 구매하였습니다. 생활용품들은 거의 다 구매하실 수 있으니 미국에서 사는 걸 추천 드려요!!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NJCU내에서도 다른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서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또한 가을학기 같은 경우에는 봄학기보다 다른 국가에서 오는 교환학생 친구들의 수가 훨씬 많아요. 또한, 영어도 외국인친구들 마다 발음이 달라서, 가끔씩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만 더 말해달라고 부탁하면 모두들 이해해주며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뉴욕이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때문에 NJCU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NJCU가 음대로 유명해서, 충북대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음악관련 수업들을 들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EWR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차로 20분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단점은 직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JFK 같은 경우에는 직항이 있지만, 학교에서 거리가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EWR을 이용합니다. (JFK 에서 학교까지는 한인 택시로 90불가량 소요됩니다) 또한, 학교 픽업서비스를 이용하려면 EWR 로 도착해야 합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강신청은 출국 전에 한 번 하고, 학교에 가서 수강정정기간에 다른 과목들로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들은 과목은 1학기때는 Forensic science, Chemical research, Keyboard Meth, ESL 1 총 4 과목이었습니다.

Forensic science는 lecture위주의 강의였지만, 종종 교수님께서 실험실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론에 나오는 기계들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보고서와 시험이 잦아 힘들었지만, 교수님이 좋으셔서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Chemical research는 교수님 한 분을 선택하여 한 학기 동안 연구주제를 정하고 실험을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실험을 위주로 한 과목 이라서, 정해진 시간에 실험실로 가는 것 보다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실험실에 들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기말에 final report를 작성하는데, 한 학기 동안 실행한 연구에 관해서 보고서를 쓰는 것입니다.

Keyboard Meth는 피아노 수업이었습니다. 코드 등 기본적인 피아노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들은 수업 중에 가장 부담이 적은 과목이었습니다.

ESL은 영어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과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에세이를 쓰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주제가 마약, 총기, 낙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서, 각국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매주 에세이 1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2학기때는 Piano class, Elem Spanish, English Composition 2(ESL 2), Human Sexual Biology 총 4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Piano Class는 1학기때 수강한 Keyboard Meth와 달리 코드 보다는 악보연주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여서 더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학생들 개개인 별로 수준에 따라 피아노 악보를 다르게 주셔서 좋았습니다.

Elem Spanish는 가을학기 때 들은 수업 중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기초 스페인어를 배워서 기초지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 진도도 무지 빨랐고 스페인어 자체가 저한테는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든 수업이었습니다. 반면에 매 수업 시간마다 친구들과 함께 롤 플레이 하는 활동이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친절 하셔서 많이 배려해 주십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쉐어룸 등)

학교 기숙사는 총 3개가 있습니다. Vodra, co-op, west campus입니다. 봄학기때에는 west campus 로 배정받아서 생활하였습니다. West campus에서는 한국인 룸메이트와 외국인 스위트 룸 메이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 방에 샤워실, 화장실, 거실, 방2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방 1 개에 2명씩 같이 살았습니다. 총 4명이 거실, 화장실, 샤워실을 같이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suite mate들이 냉장고, 청소용품, TV 등 기본적인 생필품을 가져다 놓아서 한 학기 동안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West Campus는 식당을 가려면 셔틀버스를 타거나, 10분정도 걸어서 main campus로 가야했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는 식당을 가기가 번거로웠습니다. 가을학기 때는 Vodra에서 생활하였는데 불편함 없이 만족하며 생활하였습니다. 다만 West campus 는 에어컨, 히터를 마음대로 틀 수 있었지만 vodra는 중앙난방 시스템 이여서 방이 너무 더울 때 도 있었습니다. 기숙사 비용은 West campus 1인실 > West campus 2인실= Vodra 1인실 > Vodra 2 인실 순입니다 (Co-op은 잘 모르겠어요..)

나-5. 교내·외 활동

저는 Chemical research 란 수업을 들어서, 실험실에서 같이 연구하는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종종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또한, ESL과목에서 ppt 과제가 있어서 조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환학생들과 함께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학교 셔틀버스 중에 저녁에만 다니는 Knight Rider 란 셔틀이 있습니다. 이 셔틀을 타고 아시안 마트, 마트, 파파이스 등 마트가 밀집되어 있는 Mall까지 태워 주기도 합니다. 가을 학기 때는

Meal plan이 바뀌어서 학생증에 3000불가량의 돈이 들어와서 학생회관, vodra 식당, 던킨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드라 식당 보다 학생회관 (G-sub)에 먹을 것이 더 많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뉴저지는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또한 겨울에는 Snow Storm이 자주 내려서 학교가 문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교 식당, G-sub 도 같이 닫기 때문에 알아서 식사를 해결해야 해요.

저는 2학기때 룸메 언니와 함께 아마존에서 라면 포트를 구매했어요. 라면도 끓여 먹고 떡볶이도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만능이었어요!! Vodra, 학생회관에서 파는 음식들이 엄청 질리고 가끔 뉴욕에 놀러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경우에는 보드라, 학생회관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해야 하거든요.. 심지어 학교 근처에 식당이 많이 없어요..

Main campus에서 West campus 걸어가는 길에 China-fun 이라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은 문 닫고, 현금만 받으시지만 맛도 좋고 무지 친절하세요!! (Orange flavored chicken, Lo Mein, 볶음밥 이 맛있어요!)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학기 중 봄방학때에는 교환학생 친구들과 함께 올랜도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보스턴, 워싱턴을 학기 중에 금요일과 주말을 이용해 다녀왔습니다. 뉴욕 근교에 있어서 버스를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시험기간을 제외한 주말에는 거의 뉴욕에 나가서 박물관 등을 다녀왔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만큼 다양한 경험들을 해 보세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많이 보고, 놀고, 공부하고, 즐기고 오세요!!

저는 교환학생을 통해 다른 문화도 접해보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한국에서 생활할 때 보다 더 마음 편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귀국 후 되돌아 생각해보면 힘들 때도,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국은 총기가 허용된 국가라서 위험하기도 해요. 노숙자들도 많아서 밤 늦게 혼자 다니면 무섭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귀국하기 직전에 12월쯤 학교 근처 두,세 블럭 거리에서 총기사건이 일어나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처럼 언제 어디서 총기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조심 또 조심해서 다니세요!!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